

전남도, '한국 통합관광 지원사업' 본격 시동

외래객에 관광 정보·교통 콘텐츠 등 통합 지원 남도한식 체험 등 추진...한국 관광 선도모델 개발

전남도는 올해 총사업비 214억이 투입될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이하 K'TTP)' 사업을 중심으로 전남 관광 네트워크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문객이 숙박, 관광, 음식, 체험 등 다양한 관광시설 및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K'TTP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방한 외래객을 지방으로 유도해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9

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핵심사업은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마케팅 ▲무안국제공항 내 관광안내소 및 여행자센터 운영 ▲지자체 시너지를 위한 ▲K-POP 관광 활성화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스마트 쇼핑 활성화 등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관광 자원을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는 남도 한식 체험 프로그램 발굴을 비롯 지역특화 해양레저 스포츠 운영, 걷기 여행길 조성, 환승관광 상품 운영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또 주요관광지 스마트 안내시스템 도입,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다국어 오디오 가이드 앱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특히 섬·해양 등 청정 생태자원과 풍부한 전통문화 등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특화하고, 부족한 교통·숙박·쇼핑 인프라 기반을 보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전남 K'TTP 사업의 핵심인 전남관광플랫폼(J-TaaS, 모바일 앱)에 연계할 방침이다.

전남관광플랫폼이 구축되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방한 외래객에게 지역 내 교통수단, 숙박 등 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예약·결제와 맞춤형 여행지 추천, 다국어 안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방한 외래객은 맞춤형 여행을 설계·계획하고 여행지 동선에 따라 관광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K'TTP 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 편의성을 제고하고 숙박, 교통 등 관광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며 "편리한 지역관광 경험을 제공해 전라남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405명에 만기적립금 지급

전남도는 15일 405명의 청년에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만기적립금을 지급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부터 본인이 3년간 10만원씩 적립한 금액 360만원과 전년도 지원금 370만원 및 이자 28만원을 합산해 1인당 758만원이 지급됐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전남지역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도와 청년들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개설해 3년간 저금을 유지하면 본인 적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다. 2018년 가입자 486명 중 만기 혜택을 받는 청년은 405명으로, 지난 2017년 11월 첫 만기적립금 지급에 이은 두 번째다. 전남도는 올해도 19일까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신규 가입자 1431명을 모집해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연호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시책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규제자유특구 도로 청소차·쓰레기 수거차 자율주행차량 실증 운행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도로 청소차·쓰레기 수거차 등 무인 공공서비스용 자율주행차량의 실증 운행이 이뤄진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17일부터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에 실증 대상이 된 차량은 무인 노면 청소차, 무인 산업단지 폐기물 수거차, 무인 주거단지 폐기물 수거차,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다.

이들 차량은 광주 평동산단과 수완지구, 우치공원 등을 달리며 성능을 시험받는다.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들 무인 차량 주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로 대처한다. 영상정보를 수집해 기업 등에 제공하는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이유로 도로 주행시 운전자 탑승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 운행허가 등에 대한 규제 특례가 허용됐다.

광주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지정돼 국내 최초로 운전자가 없이 도로 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 공공서비스를 실증함으로써 그동안 단순 자동차 부품 제조·조립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완성차 전진기로서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시간 교통사고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없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청년농업인과 농담(農談) 16일 오후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농업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도청 왕인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전남지사와 청년 4-H 간담회장에서 김영록 지사가 청년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단일 산단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 쉬워진다

광주시, 관련법령 개정 이끌어내 빛그린산단·첨단3지구 개발 적용

광주시의 적극 행정에 따른 관련 법 개정으로 단일 산단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인접 자치단체들 간 완전한 합의가 없으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불가능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말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사업완료 전 인접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조정절차가 없어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산단 입주기업들은 각종 인·허가, 세금납부, 행정조치 처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중되는 기업 불편과 인접 자치단체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합동감사제도 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관할구역 경계변경절차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안을 첨부해 경제조정 신청을 요구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를 통한 경계변경 조정신청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

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현재 출촌산단, 구미산단 등 지자체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개발사업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전남공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계조정에도 선도적으로 적용해 각종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통해 "광주시가 내놓은 혁신안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면서 "혁신안은 국토부 가이드라인, 국토계획법, 조례에 이미 명시된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이고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광주시는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부분별한 고층아파트 건설 등 도심난개발과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는 법적으로 막강한 심의·결정권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식적이고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영과 특정 분야, 학계 위원 50% 이상으로 된 위원 구성 비율, 타위원회와 중복 위촉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또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에 있어 법적 위반이 없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참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광주시는 전날 특정 인사 편중 논란이 일어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횟수 3회, 연인 2회까지 제한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 배제 ▲회의 개최 3일 전 공지 ▲여성 위원 확대 등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부 추가모집 ▶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교육상담학 전공)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2. 22(월)~24(수) ·전형일: 2021. 2. 25(목)

대학원 추가모집 ▶ 입학문의 대학원 605-1115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상담심리치료학과(D.C.S.)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2. 15(월)~19(금)
·전형일: 2021. 2. 22(월)

www.kwangshin.ac.kr